"석굴암은 한국불교 상징 聖寶"

11월30일 '석굴암…' 특별전 개막식

1월말까지 불교역사기념관에서 진행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동국대와 공동으로 석굴암 사진촬영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 '석굴암 백년의 빛'을 지난 11월30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막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오영교 총장 등이 전시물을 살펴보는 모습.

"석굴암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동시에 1700년 우리 불교역사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성보 중의 성보입니다."

지난 11월30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동국대와 손잡고 1909년 석굴암 사진 촬영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석굴암 백년의 빛' 특별전 개막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제3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첫 특별전인 만큼, 총무원장 스님은 석굴암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피력했다. "시절인연에 따라 제국주의의 전리품이자 약탈대상이 되기도 하고 국보로 지정되고 또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등 영욕을 거쳤지만 13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지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불자들에게는 신앙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석굴암을 보존해온 선조의 공덕을 찬탄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석굴암을 빛나게 하고 오늘날까지 보존한 것은 조성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스님들과 신도들의 신심이었다"며 "누구든 석굴암을 참배하면서 느끼는 경외감은 단순한 미술작품으로는 가질 수 없는 신비로움이다"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또 "이 특별전을 통해 석굴암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발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영교 동국대 총장도 개막식에 참석, 총무원과 함께 여는 석굴암 특별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오 총장은 "동국대의 발전 자체가 종단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불교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불교콘텐츠를 연구·발전시키는데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창희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석굴암은 종교와 예술, 건축, 수리, 기하학 등을 총체화해서 부처님 지혜를 표현한 예술혼의 극치"라며 "이번 특별전이 석굴암의 불교문화적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도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기획실장 원담스님, 문화부장 효탄스님, 호법부장 덕문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 등 33대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현종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등 박물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을 마친 뒤, 총무원장 스님과 오영교 총장 등 주요 내빈들은 신유철 불교중앙박물관 학예사의 안내로 전시유물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2010년 1월 31일까지 열린다. 하정은 기자

암투병 환우 '산사서 희망찾기'

포교원포교연구실·본지 주최

2차프로그램 육지장사서 진행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동성스님)과 불교신문(사장 선묵스님)이 공동주최한 '환우를 위한 산사에서의 명상과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지난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동안 양주 육지장사에서 열렸다.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16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열린 1차 프로그램에 이어 2번째로 열린 이번 환우 프로그램은 암 투병을 했거나 투병 중인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암 투병으로 인한 심신의 고통을 치유하고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몸·마음 현상 그냥 바라보며 알아차리기 명상'과 '자애명상' '죽을 때 듣고 싶은 말-역할연기' '죽을 때 하고 싶은 말' '관점 나누기, 감사하기' '사과 그리고 용서, 108배-번뇌 내려놓기' '깨어있기 그리고 유익한 행위 선택하여 행하기' '유익하지 않은 행위·습관 찾아보기' 등 불교식 명상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포교연구실은 두 차례에 걸친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가진데 이어 이달 말께 프로그램 개발보고서를 발간해 전국 사찰이나 단체가 환우치유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등의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티베트불교 연구하고 수용"

최연철 박사, 5차 국제정책세미나서 주장

티베트 불교를 본격적으로 연구, 수용해 한국불교의 교학과 수행의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국제교류위원회 주최로 지난 11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불교세계화 모색을 위한 제5차 국제정책세미나'에서 티베트 불교에 대해 발표한 최연철 동국대 박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제에서 최연철 박사는 티베트 불교의 현주소와 성장 요인에 대해 살펴본 뒤 한국과 티베트 불교의 연대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연철 박사는 "지금의 서구불교는 1950년대 선불교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수행법을 거쳐 티베트 불교의 수행과 교학으로 관심 축을 이동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불교가 앞장서서 티베트 불교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박사는 "티베트 불교는 인도불교의 체계화된 전승내용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연구, 수용하고 한국불교의 개방적인 구법의 정신을 적용한다면 다양한 불교문화의 용광로 속에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티베트 불교와의 교류는 선종단과 밀교종단이라는 대립적 접근이 아니라 종합적인 비구종단으로서 정법을 수호하고 포교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개방적 상생의 원리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치란 조계종 국제교류위원이 '태국·라오스 불교이해와 한국불교와의 교류'를, 산청 도성사 주지 빤냐완따 스님이 글로벌시대의 개방에 따른 한국·미얀마 불교교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학계와 현장에 있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세계 속에 함께 발 맞춰 나가는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자승스님, 종단협 회장 추대

11월30일 이사회서 만장일치 의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27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임 회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추대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11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임 회장인 지관스님(조계종 전 총무원장) 후임으로 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을 신임 부회장으로,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스님과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스님, 태고종 부원장 법현스님 등을 신임 상임이사로, 본원종 총무원장 만혁스님을 신임 이사로 각각 새롭게 추대했다.

또한 종단협은 오는 2010년 1월14일 오후2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하는 등 2010년도 사업안도 확정했다. 이를 위해 2010년 세입·세출 예산으로 7억2120만원의 예산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지난 11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거행된 제14기 국제포교사 품수식.

"전법사로 최선 다하라"

포교원, 국제포교사 품수식 거행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스님)은 지난 11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4기 국제포교사 품수식을 거행했다.

이날 품수식에는 국제포교사고시에 최종 합격한 박종완 씨 등 44명의 우바새, 우바이가 신규 국제포교사로 품수돼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국제포교사 자격증과 품수증을 수여한 뒤 격려사를 통해 "보살행의 원력을 철저하게 세우고 포교의 꽃을 피우는 한 사람의 전법사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4기 국제포교사로 품수된 이재홍 씨는 발원문을 통해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로써 부지런히 전법과 포교의 길을 가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서원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포교결집대회 기록물 공모전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스님)이 '제1회 포교결집대회 기록물 공모전'을 실시한다. 지난 11월14일 열린 포교결집대회 참가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포교결집대회 참가과정과 대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UCC 등의 기록물, 원고지 10매 내외의 참가후기를 작성해 오는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현장에서

'아주 특별한 진산식'

지난 11월24일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 훈훈함이 넘치는 '특별한 진산식'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지난 8월 제26대 마곡사 주지로 선출된 원혜스님이 취임을 축하하는 진산식을 대신해 지역 소외계층에게 김장김치와 쌀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이웃과 함께 하는 뜻을 같이 했다.

제25교구본사 봉선사(철안스님, 2003년), 제5교구본사 법주사(노현스님, 2008년), 제3교구본사 신흥사(우송스님, 2009년) 등 교구본사에서 신임주지 진산식을 대신한 나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외에도 전국 각 사찰과 불교계 복지시설에서도 김치와 쌀, 연탄 등을 전하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불교계에 이같은 보시행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어느 해 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하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더불어 국민들의 가벼워진 지갑만큼 불우이웃에 대한 나눔도 줄고 있는 이때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사부대중의 보시행은 사회적으로도 귀감을 주고 있다.

때문에 진산식을 대신해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마당을 펼친 교구본사들의 선택은 새로운 나눔 문화의 전형이 되기에 충분하다. 진산식 이외에도 연말연시를 맞아 불교계에서 열리는 각종행사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보시의 규모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올해 불교계 행사에서 이같은 나눔 문화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무단복제, 대량유통, 중국산에 병들어 가는 한국의 사찰!

모든 것이 변해도 전통문화예술을 지키고 사상과 정신을 이어가야 할 사찰이 무단도용 복제한 중국산 싸구려 짝퉁에 점령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불교미술의 한 분야에 평생을 정진해오면서 장인정신으로 조성된 작품이 일부 장사치들의 상술로 무단도용되어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국내사찰에 유통되고 있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불상과 불화는 이미 정도를 넘어서서 대작불사를 하는 사찰에 봉안되어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량이나 연륜이 떨어지는 작가들이 대가들의 작품을 일부 모사하는 사례는 아량으로 베풀 수 있지만 몰지각한 장사치들이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수 십 명의 직원을 고용 또는 위탁 제작한 물건을 국내에 들여와서 상식이하의 저가로 대량유포하고 있는 터에 본인의 작품(탱화)이 또 다시 무단복제 배포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andala21.com)와 작품도록에서 무단도용 복제한 짝퉁으로 전국사찰과 상점을 돌면서 주문을 받아 배포하는 행위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치는 범죄행위이기에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11세에 불화에 입문, 40년 외길을 정진해 온 과정에서 혼을 다한 작품들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불화초안을 출초하고 색조와 문양을 구사함에 달인의 경지에 이르자면 장구한 세월의 노력과 혼신의 열정이 따릅니다. 불교미술사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신념과 사명감으로 평생을 다해 온 노력이 장사치들의 불법도용과 복제로 난무하다보니 허탈한 좌절감에 빠집니다.

본인의 작품 홍보와 함께 대중들의 안목을 넓히고자 개설한 사이트와 작품도록이 몰지각한 장사치들의 먹잇감으로 도용되는 폐단을 자초한 결과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1600년 역사의 찬란한 문화를 이어 온 한국 불교가 사기꾼들 장사치 시장으로 전락하여 불보살 성물들이 중국산 짝퉁으로 점령되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만연되고 있음을 사부대중은 심각히 자각해야 할 일이며 민족종교의 정신과 전통문화예술의 흥망이 달린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부처를 팔아먹고 나라의 자존심도 팔아먹는 장사치들이 한국불교문화예술사에 치욕을 남기는 죄악을 저지르는 짓을 근절하기위해선 정부차원의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이나 승려들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확립되어야만 합니다. 급하게 법당불사를 추진하고자 눈가림용으로 저질 싸구려 작품을 구매하는 승려도 문제지만 대가들의 작품을 도용복제해서 기성작가인양 행세하는 작자들이 전국의 사찰불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금전과 인맥의 뒷거래로 명장의 이름을 거래하고 수단방법을 총동원해서 사기를 일삼는 장사치들이 난무하는 현실이지만 30~40년 이상을 묵묵히 외길을 걸으며 작품에 혼을 불사르는 숨은 장인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생을 신념과 사명감으로 신심을 다해 온 불교예술의 각계 장인들을 존경하오며 그들의 심정처럼 이 글을 올리오니 서원불사에 정진하는 대덕스님들께서도 현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바라옵니다.

대승불교미술원 · 佛畵匠 공우 이진경 합장